

# 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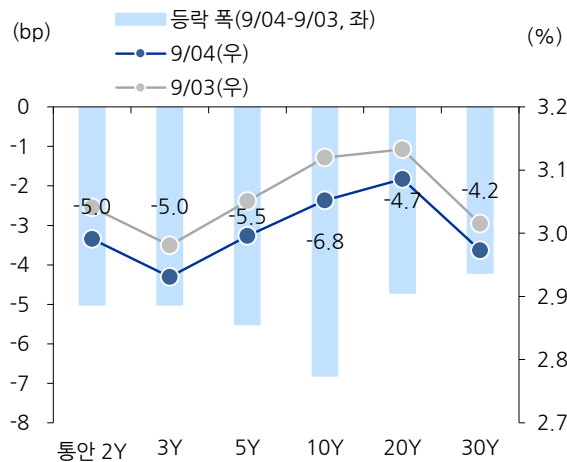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\_02)368-6149\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\_02)368-6176\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\_02)368-6177\_dbwogur170@eugenefn.com

## 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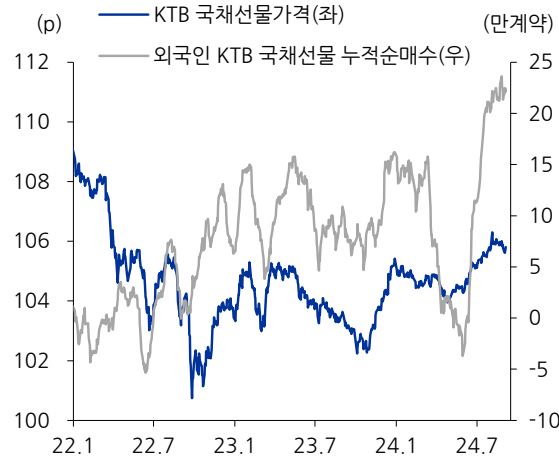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9/4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31%	-5.0	1.2	-22.3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52%	-6.8	-0.2	-13.1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2.1	13.9	13.5	2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81	16.0	-8.0	39
	10년 국채선물(LKTb)	116.48	58.0	-7.0	98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757%	-10.8	-14.4	-49.3
	미국채 10년물	3.756%	-7.6	-6.7	-12.3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-0.1	-3.3	-7.8	-37.1
	독일국채 10년물	2.224%	-5.1	-3.4	22.0
	호주국채 10년물	3.949%	-5.5	1.7	-0.6

## 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##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##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## 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 대외 금리 연동
- 전일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경기침체 우려 재부상한 점 반영. 장중 주가가 급락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된 점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
- 아시아장 중 미국채 금리 하락하고,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하며 강세 지지

##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 고용 부진 영향
- 7월 구인건수, 예상치 큰 폭 하회하며 9월 빅컷 인하 전망이 급증. 장 중 한때 10년-2년 금리 역전 해소
- 애틀랜타 연은 총재, 노동시장 약화 조짐 증가를 언급하여 인하를 미룰 수 없음을 강조
- 금일 미국 8월 ISM 비제조업 지수, 미국 8월 ADP 비농업 고용,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등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

## 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	9/4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42.20	0.1%	0.2%	4.2%
	달러지수	101.29	-0.5%	0.2%	-0.0%
	달러/유로	1.108	0.4%	-0.3%	0.3%
	위안/달러(역외)	7.11	-0.1%	-0.2%	-0.2%
	엔/달러	143.76	-1.2%	-0.6%	2.1%
	달러/파운드	1.315	0.3%	-0.3%	3.3%
	헤알/달러	5.64	-0.1%	1.3%	16.2%
상품	WTI 근월물(\$)	69.20	-1.6%	-8.4%	-3.4%
	금 현물(\$)	2,495.75	0.1%	-0.4%	21.0%
	구리 3개월물(\$)	8,965.00	0.1%	-3.2%	4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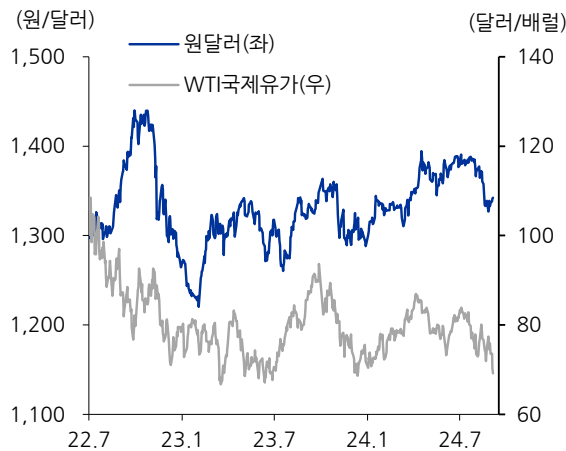
##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##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##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## 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0.80원 상승한 1,342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36.00원 마감.
- 간밤 미국 ISM 제조업지수 부진으로 침체 우려가 다시 확산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 악화. 원화는 국내 증시 급락 속에서도 뚜렷한 약세 흐름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강세 압력도 제한.
- 장중 흐름은 전일에 이어 방향성 없이 양방향 수급 소화하는 형세. 미국 고용 지표 대기 심리가 지배적이었음.

##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구인 수요 둔화에 하락.
- 미국 7월 구인건수는 767.3만 건으로 시장 예상을 30만 건 가량 하회. 구인/실업 비율은 1.07배로 2018-2019년 평균(1.16배)을 하회. 해고도 전월비 20만건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전 하회 중.
- 구인건수 급락에 장중 10년-2년 금리 역전이 한 때 해소되는 일 발생.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경제활동이 보험세를 보이거나 감소했으나, 고용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평가.
- 금일 미국 ADP 고용 및 ISM 서비스업지수 발표 예정.